

“전주항공대대 이전 주민투표 실시해야”

전주시가 206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부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사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206항공대대 도도동 이전반대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부지로 도도동 일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다”며 항공대대 이전 사업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전북북쪽연합과 전주시민회, 전주시 농민회, 정의당 전북도당이 연대해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

연합비대위, 주민의견 철저히 무시 이유로 전주시 “합법적 행정절차 거쳐 문제 없어”

론에 힘을 실고 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전주시에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의 ‘청구안대표자(한승우)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가 지난해 승인한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을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전주시가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항공대대 이전 사업을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전주시가 작성한 전라 환경영향평가가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소음대책지역 소음환경 기준의 적용문제’ ‘소음도 조사지점’ ‘월기운항 회수’ 등의 내용이 부실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며 항공대대 이전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송원동 기존 부지에서 불과 8km 이동하는 전주항공대대 이전 사업의 본질은 예코시티주식회사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 결연한 의

지로 전주시의 비민주적 행태에 끝까지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전주시는 예정대로 내달 중 사업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합법적 행정절차를 거쳐 항공대대 이전 사업을 추진, 현대 토지보상률도 55%에 달해 3월 중 착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항공대대 이전 부지 도도동 주민들과 꾸준히 협의를 해왔고, 토지 보상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오는 2018년까지 이전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잘 다녀오세요 남수단 재건 지원을 위한 파병 한빛부대 6진 환송식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특전사령부 연병장에서 파병 장병이 딸과 입맞춤을 하고 있다.

임대사업 미끼 180억 가로채

익산경찰서는 23일 중장비 임대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 돈을 뜯어낸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

23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군산지역에서 중장비 임대사업과 농협 기프트 카드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40명으로부터 18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악성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노영 기자

순천완주 고속도로 승용차 25톤 트럭 추돌...3명 숨져

23일 0시 44분께 전주시 금상동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울란도 승용차가 25톤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정모(60)씨와 동승자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승용차 탑승자 모두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가 고속도로 터널을 빠져나와 화차로로 빠지는 화물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노영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1회용 주사기 재사용 ‘NO’

전주시보건소, 내달 31일까지 신고 접수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와 함께 병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23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병원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이 집단 발생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을 통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는 관내 985개소 의료기관 및 전주시의사회, 전주시치과의사회, 전주시한의사회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안내 공문을 발송, 내달에는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또한 전주시청과 보건소 양 구청 홈페이지에 건강보험공단 신고센터를 연계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병원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다”며 “전주시에서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등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적발시에는 의료법상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에서 C형간염 등 감염 확인사에는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의뢰(고발 등)할 예정이다.

중소상인 상대 역대 사기행각 털미

군산지역 중소상인을 상대로 역대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와 유사 성행 위 영업을 한 마사지업소 업주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시공권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남·50)와 차량 매입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빼돌린 B씨(남·30)를 검거·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경 전주시공업단지 피해자에게 ‘모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금액의 85%의 시공권을 주겠다’며 3억원을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3억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B씨는 지난해 9월경 차량 매입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1억6천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이같은 수법으

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5억3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태국여성을 불법 고용해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마사지업소 업주 C씨(남·40)와 종업원 태국 여성을 적발했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22일 해당 업소에서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했다.

업주는 올해 초부터 군산시 상가 밀집지역에 6개의 방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열고 불법채류 상태인 태국여성을 고용, 불법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태국여성들은 불법채류 및 채류자력 등 위반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 관련 조사 후 강제출국할 예정이다. /군산=윤정근 기자

화장실서 낳은 영아방치 살해 20대 여성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부단독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다 화장실에 빠뜨려 사망케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

에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30분께 자택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를 화장실에 빠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A씨는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하던 중 아이가 화장실에 빠져 죽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만 직후 영아를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 숨지게 뒤 죄질이 무겁다”며 “원치 않던 임신을 하고 친부와 헤어진 뒤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돼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 공원 먹는 물 수질 특별관리

변방동 마을 상수도 16곳도

전주시가 시민들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 특별관리에 나섰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해빙기 상수원 및 지하수를 이용한 공원내 다수인 음수대의 수질오염에 대비해 오염원 제거 및 오염 시 처리대책 마련 등 시민들의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먹는 물 수질 특별관리는 해빙

기를 맞아 상수원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등 유기물질의 증가하는 수질 변화 및 지하수의 경우 지표수의 침투로 인한 병원성 미생물 유입 등을 대비해 이뤄졌다.

주진 대상은 전주권 광역 상수도 변방동 지역에 산재해 있는 마을상수도 16개소 및 야외 활동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내 다수인 음수대 11개소 등 총 28개소에 대한 수원별 맞춤형 관리를 이달 말부터 한 달 동안 시행한다.

전주권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원수(용담호) 현지 수질변화 추이 조사 및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신속히 대응 배수지 10개소의 공급과정 중 2차 오염 여부를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수도꼭지수 수질검사를 통해 원수~수도꼭지수까지 전 과정 수질관리에 집중한다. /김영재 기자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곁을 지켜드리는데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